

# 광주FC, A매치 휴식기서 반등 해법 찾을까



### 승점 6 리그 6위...중위권 팽팽한 격차로 초접전 득점력 강화 과제...신창무·공배현 등 활약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A매치 휴식기 동안 반등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올 시즌 개막 이후 5경기를 치른 광주FC는 현재 1승 3무 1패 승점 6점으로 리그 6위(득실차 -4)에 위치해있다. 개막전 무승부에 이어 4경기 동안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광주는 지난 22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0-5 패배를 당하며 순위가 급락했다.

약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한 K리그1의 초반 순위 싸움은 치열하다. 3위부터 11위까지 인접한 팀들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광주는 4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6·득실차 +1), 5위 부천FC1955(승점 6·득실차 0)와는 승점차 없이 골득실차로 순위가 갈려있다. 위로는 3위 전북현대모터스(승점 8) 정도와 뒤집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래로는 7위 FC안양(승점 5), 8위 김천상무FC(승점 5)가 1점 차로 맹추격 중이다. 또 9위 인천유나이티드(승점 4), 10위 강원FC(승점 3), 11위 포항스틸러스(승점 3)가 바로 아래 위치해있다. 한 경기만 빼앗아더라도 순식간에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상반기 광주의 고난길은 이미 예정됐다. 기존 주축 선수들의 계약 만료와 함께 FIFA로부터 받은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약제가 겹쳐졌다. 이에 여름 이적시장까지는 원활한 스쿼드 구축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부상 악재까지 팀을 덮쳤다. 베테랑 안영규, 주세종, 최경록, 민상기 등이 줄부상으로 이탈해 서울전에서 극명한 전력차를 경험했다.

‘악전고투’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공격력이다.

광주는 올 시즌 5경기에서 4골을 기록, 이 부문

8위에 있을 정도로 골이 터지지 않았다. 리그 득점 최하위 포항(2득점)과도 차이가 크지 않다. 유효슈팅은 6위(17개)를 기록했으나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골 결정력이 있는 확실한 해설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다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는 클리어링 5위(127개), 블락 3위(96개)를 달리고 있다. 실점 위기 상황을 잘 넘겨낸 수비진의 힘이 돋보이는 기록이다. 또 차단 2위(88개)와 지상 경합 4위(41개) 등에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상대와의 볼 싸움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또한 눈에 띈다.

부주장 신창무는 올 시즌 5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하며 이 부문 리그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가 한 시즌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지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는 프로 데뷔 후 첫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1992년생인 신창무는 에이징 커브가 우려되는 나이임에도 커리어하이 수준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키캡스 11개와 크로스 성공 10개를 기록하며 이 부문 각각 리그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7개의 슈팅 중 5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는 등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모두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신창무의 활약은 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지훈, 안영주 등 젊은 공격수들에게 자극을 제공하며 팀 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중심 역할도 수행 중이다.



지난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 FC서울과 원정 경기에 앞서 광주FC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루키 센터백 듀오’ 공배현과 김용혁의 성장 역시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부터 나란히 선발 출전하며 팀의 중앙 수비를 책임졌다. 경험이 중요한 센터백 포지션 특성상 10대 선수가 나란히 선발 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김용혁과 공배현은 유스 시절부터 호흡을 맞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 무대에서도 안정적인 조직력을 선보였다. 기대 이상의 침착함과 집중력을 보여주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김용혁은 김천전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 58회(팀 내 1위), 패스 성공률 89%, 볼 획득 10회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공배현도 데뷔 첫 선발 출전 경기인 김천전에서 패스 성공률 91%, 태클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

이외에 고부적인 점은 부상병들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안영규, 주세종, 최경록, 민상기

등이 휴식기 직후 출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광주는 휴식기 기간 체력과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6~28일 사흘간 훈련을 소화하며 다양한 전술과 선수들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후 A매치 휴식기를 마친 뒤 오는 4월 4일 강원과 정규리그 6라운드에 돌입한다.

협로를 걷고 있는 광주가 휴식기 기간 완벽한 재충전을 마치고 반등을 위한 승점 사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청 우수팀 김민수(왼쪽)는 지난 23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수 산타 -60kg급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 전남 우수 김민수, 국대 선발 1위...AG 티켓 획득

### 산타 -60kg급...태극권 전능 장민규, 2년 연속 태극마크 겹경사

전남도청 우수팀 김민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민수는 지난 23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수 산타 -60kg급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해남에서 열린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대표팀에 합류한 김민수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권혁(서울시실업군단)을 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강희준(충북 비룡관)을 2-1로 꺾고 최종 우승을 확정,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다.

김민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아쉬움을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반드시 금메달로 만회하겠다”고 전했다.

태극권 전능에 나선 장민규(전남도청) 역시 안현기(충북개발공사)에 이어 2위를 기록, 2년 연속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장민규는 오는 4월 초 김민수와 함께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국가대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병용 전남도우수협회장은 “전남 우수 역사상 투로와 산타 선수가 동시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의 체계적인 훈련과 전남도청과 전남체육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선수들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김민수 선수의 아시안게임 출전권 확보와 장민규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은 전남 우수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전남체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 김도현, 전국클라이밍대회 ‘은’...아시아선수권 출격

### 남일부 리드 2위·볼더 4위

### 내달 중대회 국가대표 발탁

전남 클라이밍 김도현(월출마당산악회)이 전국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선수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도현은 최근 전북 군산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제46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리드와 볼더 부문 2위와 4위를 기록, 2026년 아시아 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김도현은 리드 부문에서 예선을 거쳐 종합 5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집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등반을 펼치며 은메달을 따냈다. 이어 볼더 부문에서도 결승에 올라 4위를 기록하며 두 종목 모두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로써 김도현은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리는 ‘2026년 아시아 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에 리드와 볼더 두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김도현을 비롯해 이준우·채성준



전남 클라이밍 김도현(월출마당산악회·왼쪽 첫 번째)이 ‘전국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선수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정의연(이상 월출마당산악회), 김민영(순천클라이밍), 김주한(순천공업고등학교), 이상우(여수클라이밍) 등 전남 지역 선수들도 출전에 기량을 뽐냈다.

채성준은 리드 17위·볼더 5위를 기록했고, 정의연은 리드 19위·볼더 15위·스피드 9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이준우는 스피드 19위, 김주한은 스피드 18위, 이상우는 스피드 20위를 기록하며 전국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다.

김중환 전남산악연맹 회장은 “김도현 선수가 예선부터 결승까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유망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체중 사격부, 전국대회서 ‘금빛 총성’

### 전승민, 10m 공기소총 개인전 1위...남중부 단체전 ‘대회최’

광주체육중학교 사격부가 ‘제9회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

광주체중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먼저 남중부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 출전한 전승민(3년)은 246.8점을 쏘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전승민이 기록한 점수는 종전 대회신기록과 타이이다.

남중부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도 금메달이 나왔다. 허동원·박병환·신주연(이상 3년)·송아윤

(2년)으로 팀을 이끈 광주체중은 총점 1688점을 기록, 종전 대회신기록(1679점)을 경신하며 정상에 올랐다. 종목 개인전에서는 허동원(3년)이 결선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2위를 기록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여중부 역시 값진 성과가 올랐다.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 출전한 정아름·정아영(이상 3년)·임윤선·장서우(이상 2학년)는 총점 1864.5점을 획득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임윤선(2년)이 최종 2위에 오르며 은메달을 확보했다.



최근 열린 ‘제9회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광주체중 사격부 선수단. 사진제공=광주체중

이병관 광주체중 교장은 “학생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맞춤형 훈련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